



6월 20일(화) 17:30 (행사종료) 이후 사용

담당

국무조정실
사회조정실 고용정책과

과장 손진욱, 사무관 김주홍
(044-200-2372, 2373)

이낙연 국무총리, '중앙-지방, 지역일자리 창출에 적극 협력'

- 경산산업단지 현장방문, 지역일자리사업 추진상황 점검 -

□ 이낙연 국무총리는 6월 20일(화) 오후, 경산산업단지(경북 경산시)를 방문하여 지역일자리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.

* 참석 : 김관용 경북도지사,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, 최영조 경산시장, 윤진필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, 윤정일 한국노총 경북본부 하내HRD센터장 등

○ 이번 방문은 일자리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일자리 추경예산 편성 등 적극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,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통해 지역일자리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.

□ 이 총리는 먼저, 고용노동부 차관과 경산산업단지 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지역일자리사업의 현황과 경산산업단지의 사업내용을 보고받은 후,

○ 공단 내 문화휴식공간인 '잡카페'*와 근로환경 개선에 선도적인 기업체**를 방문하여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청년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로 만드는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격려했다.

* (잡카페) 근로자 및 타지역 출장자의 간단한 사무업무 지원(검색, 프린트, 스캔, 팩스 등), 근로자의 문화·휴식·정보교류 장소, 기업체의 면접 및 부서간 회의장소 제공, 회의 및 면접공간의 고용네트워크 형성 장소 제공

** (에나인더스트리)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체이며, 중소기업진흥공단 일하기 좋은 으뜸기업 선정('14), 여가부 가족친화기업 인증 획득('15), 중기청 주관 2016년도 글로벌강소기업 선정('16)

□ 한편, 경산산업단지 사업은 지역 인재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교통, 육아 등 근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청년층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,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여 고용부가 주관한 '16년 지자체 일자리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했다.

※ (참고) 1.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개요
2. 경산산업단지 사업 개요

□ 사업개요

- (목적) 자치단체가 지역의 다양한 고용주체들과 상호 협력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 및 인적자원사업을 발굴,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('06년도부터 시행)
 - 자치단체가 지역 내 노사단체, 연구기관, 대학교, NGO 등 비영리 단체·법인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
- (사업내용) ①지역특성에 맞는 직업훈련, 창업교육, 취업장려금, 고용문제 관련 실태분석 등 ②산업단지 등 고용환경개선사업(기숙사·통근버스 임차지원 사업), ③구조조정 지원 사업(조선업 등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지원) 등

□ 예산지원 (고용보험기금)

- 2017년 예산 : 1,313억원
 - * 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에 따라 대응자금 부담(20~40%)

구분	'13년	'14년	'15년	'16년	'17
예산(억원)	532	803	900	1,300	1,313

<참고: '16년 경북지역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현황>

- 경북 : ('16) 35개 사업 66억원 → ('17) 30개 사업, 77억원 (매칭20%)
 - * 지역주력·협력사업의 기업경쟁력 강화지원, 지역 구조조정 업종 근로자 지원, 취약계층 등 고용창출지원, 취업정보센터 운영, 통근버스 상시운영 등 산업단지 지원

참고 2

경산산업단지 사업 개요

*'16년 고용부 전국지자체 일자리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명 : 청년과 함께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
 - * 경산산단, 왜관산단에 취업정보센터 및 잡카페운영, 출퇴근무료 순환버스 운영 등 고용환경개선사업
- 수행기관 : 한국노총 경북본부 하나HRD센터
(경북 경산시 진량읍 공단7로 126, 근로자복지회관)
- 총 사업비 : 9억원 (국비7.6 억원, 지방비 1.3억원)

- 경산산단: 주로 기계금속, 섬유 의복, 기타제조업체 위주로 367개 기업에서 1.4천명이 근무중임(단지규모 약 108만평)
- 왜관산단 : 주로 기계, 전기, 운송장비 위주로 408개 업체에서 약 1만명이 근무중 (단지규모 약 77만평)

□ 추진배경

- “지역산업단지에 지역 청년인재들이 스스로 찾아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자”라는 모토로 지역 현황에 맞춘 「산업단지형 복합 취업지원시스템」 을 구축
- 취업 전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전달 및 진로탐색 기회 제공
 - 취업 후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해 청년구직자에 맞는 근무환경과 비전 제시
 - * 취업정보센터운영, 잡카페 운영, 산업단지 출퇴근무료순환버스 운영,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마련

□ 사업내용 및 주요실적

- ① 취업정보센터 운영 및 입주기업 일자리 홍보(경산, 왜관 산단)
 - 대구경북 지역 청년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일자리 소개, 직무 체험기회 제공
 - '11.10~'17.4월동안 총 1,666건 워크넷 취업('16년 366건)



② 산업단지 근로자 무료 순환버스 운행(경산 산단, 왜관 산단)

- 대중교통 수단이 부족한 산업단지로의 접근성을 강화하여 입주기업 취업을 활성화하고, 근로자의 출퇴근 불편 해소에 기여



③ 산업단지 입주기업 일·가정 양립 문화 조성 활동(경산 산단)

- 기업의 일·가정 양립 문화 실천과 일가양득 캠페인 참여를 위해 사업주·근로자 대상 다양한 소통 활동 전개 및 우수사례 발굴 노력



□ 효과

- 산업단지 중소기업의 상시적 인력난 해소 및 청년층 취업지원
 - '15.3~'16.8월까지 675명 취업
- 직장어린이집 설립을 통해 근로자 복지 개선 및 일가정 양립 기반 마련
- 일자리사업을 근로자 단체가 주도하는 새로운 노사협력 모델 제시